분규의 고통과 불교문화 성숙 '두 얼굴'

본지선정 '99 교계 10대뉴스

올 한 해 불교계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회법에 의해 중도 하야하고 폭력사태로 이어진 고질적인 분규재연으로 불자들과 국민들을 실망케 했지만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도약을 준비한 한 해 이기도 했다.

불교계 대표들의 잇단 방북으로 통일의 물꼬를 텄으며, 불교인터넷TV가 개국되고 각 종단의 전산화가 가속화 되는 등 인터넷 시대의 포교를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었다. 세계 최초의 비구니율원인 금강율원이 개원되고, 세계최대의 불교종합 대백과사전인 〈가산불교 대사림〉이 첫 선을 보여 승가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또한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의 장기기증 및 화장서약 캠페인은 교계의 생명운동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불교TV의 파산 위기, 군법당 건립 시주금의 뇌물적용 사건, 잇단 성보문화재의 도난은 희망의 세기를 태동하려는 불교계의 마지막 산고가 되었다.

이제 불교계는 이러한 아픔을 잘 추스려 새로운 세기, 청정불국토의 건설을 다짐하고 있다. 본지는 올해 일어난 여러 뉴스 중 10가지를 선정해 한해의 명암을 되돌아 보며, 불국토 건설의 서원을 다시금 확인해 본다. 〈편집자 주〉

조계종 분규악몽 재연

10월 1, 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42재판부가 정화회의측이 제기한 총무원장직 부존재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도견스님을 지명하면서 조계종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큰 혼란에 빠졌다. 조계종은 11월 15일 총무원장선거를 치러 정대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뽑음으로써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사태와중에 고산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9개월만에 물러났으며, 조계사 성역화 사업, 종교간 협력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폭력사태가 발생해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케 했다.

성보도난 올해도 여전

올해는 유독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성보 드난이 많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문화재 도난 백서〉를 발간해 성보 도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문화재청이 99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동안 경북 영주 흑석사 목아미타불좌상(국보 제228호)등 9건 15점의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했다.

84년부터 99년 6월까지 유실된 성보를 조사한 〈백서〉는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종법제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 종단 차원의 방책등을 제시했다.

세계최초 비구니 율원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율원장 묘엄)이 1기 율원생 6명이 입학한 가운데 6월21일 봉녕사 청운당에서 개원했다. 한국 비구니계의 위상을 한차원 높인 결과물로 평가되는 금강율원은 율장의 전문적 연구,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율학을 전승할 율사 양성 등을 목표로 2년간의 전문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금강율원의 개원은 비구니를 차별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는 계기가 되고 비구니계의 위상강화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가산불교대사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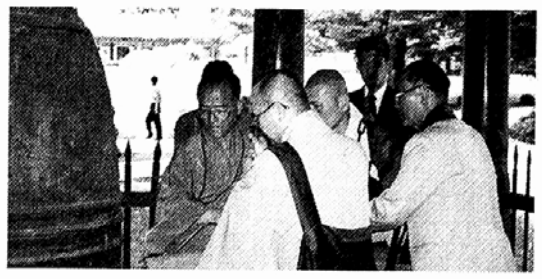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의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은 국내외 15만 항목의 불교 술어를 결집하는 대불사로 1월 1, 2권이 출간됐다. '일반불교 및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산불교대사림〉은 기존의 불교사전보다 한국불교항목 30%를 새롭게 추가한 불교종합 대백과사전. 한자어·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벳어 등 원어로 명기해 복잡어휘 활용도 강화. 종교·역사·철학·문헌학 등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의 필독서다. 매년 2~3권씩 15권으로 완간된다.

파산 위기의 불교TV

97년 IMF가 터지면서 경영난에 봉착한 불교TV가 99년으로 접어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신규 프로그램 제작 중단, 급여지급 불능 등 파행운영이 가속되면서 총파업 직장폐쇄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지난 1월 신허 대표이사 체제로 가면서 경영정상화를 기할 인물영입에 나섰으나, 회암스님 직무대행체제에 이은 5월 허문도씨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 등 진통만 심화될뿐 성과를 보지 못했다. 재정난을 풀고 경영의 묘를 살릴 인물영입이 최대의 관건으로 남아있다.

불교계 대표단 첫방북

범종단 대북창구 민족화합불교추진위 대표단이 처음으로 방북했으며 이에따라 진각종, 평불협이 방북하는등 대북교류에 획기적인 한획을 그었다. 특히 종단협 차원의 금강산 순례단 1천1백여 불자가 6월3일 신계사터에서 법회를 개최하고, 진각종의 경우도 9월18일 종단대표가 방북하는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의 성과로 내년 종단협차원의 대표단방북, 남북불교 학술회의개최, 통일토론회 개최,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 방북 등이 가시화되어 향후 남북불교교류에 발전적인 전망을 기대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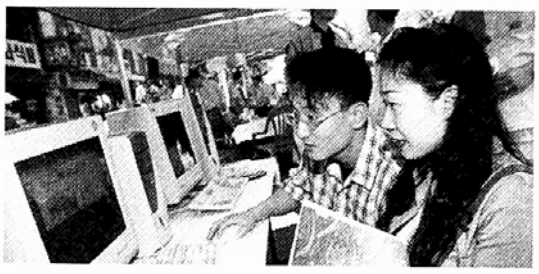


군법당 시주 뇌물판정

현역 불자 장성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재판에 회부되어 군불교의 위축을 우려케 한 김태복 소장 사건은 군법당 건립을 위해 불자나 일반인이 낸 시주금을 뇌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김태복소장 재판과 관련 군재판부는 5월26일 '시주금도 뇌물'이라고 판결, 김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종교편향대책위는 9일 '군검찰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요구했다. 김소장사건은 군포교에 파장을 미쳐 군법당 건립외면등 군불교의 심각한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종무행정 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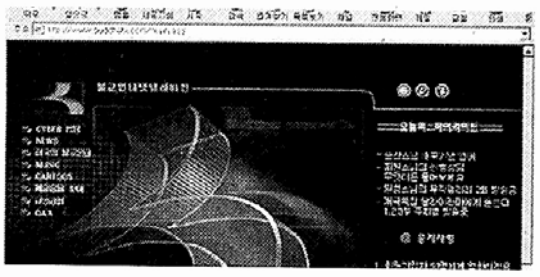
99년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등 대표 종단들이 '디지털 종단행정' 시대를 연 원년이었다. 조계종은 교계 처음으로 포털사이트(Portal Site)인 '달마넷'을 개설하고, 종무행정 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정보화 시대를 열었다. 태고종은 종단과 사찰, 단체들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화재 현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한국불교태고종 통합정보시스템망'을 구축하고 있다. 천태종과 진각종, 총지종 역시 각각 종단 홈페이지를 개설, 전자포교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종무행정 전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불교 인터넷TV 개국

인터넷 상에서 TV처럼 실감나는 동영상과 오디오로 뉴스 드라마 다큐물 등 종합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TV방송이 잇달아 개국했다.

11월30일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의 한마음방송국(HBTV/www.hanmaum.org)에 이어 12월1일 불교인터넷텔레비전(BIT/www.buddhatv.com)이 본격적인 방송서비스에 나섰다. 불교인터넷TV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행생활을 비롯한 포교 교육활동까지 폭넓은 역할을 하는 영상포교의 총아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기증·화장 확산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캠페인은 올해에만 2,468명이 장기기증에 서약, 94년에 비해 5배,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화장유언도 올해 6,243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기기증 및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백양사 등 많은 사찰들이 납골당을 설치했거나 준비하는가 하면, 화장을 장려하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13일 국회를 통과해 사찰에는 [illegible] 및 납골장 설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2000만 불자와 함께, 국민과 더불어 열린 새천년을

불자화합의 대축제

제4대 회장취임 및 국민화합을 위한 대법회

■ 일시 : 1999년 12월 17일 13:00 ~ 16:00 ■ 장소 : 올림픽공원 제2체육관(펜싱경기장)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 주신 삼보(三寶)의 힘으로 호국하고, 국민에겐 정신적인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은 모든 방면에 경쟁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어, 불교에 있어서도 과거의 이념과 실행방법의 새로운 조화, 시대상황의 선도라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건전하고 진실한 종교생활은 물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사회적 갈등을 어루만지는 등의 소금과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의 큰 뜻을 받들고 실행하는데 미력하나마 한불총의 65개단체의 120만 회원님들과 더불어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제를 중심으로 불자님들의 신행활동을 요약하자면

재가불자님들의 신행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교단을 외호
청년불교화
지역갈등 해소(사회적 갈등 극복운동)
남북교류 및 문화의 동질화 추구
사회봉사 확대
불자 및 불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열린 신행활동)

등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 주요행사

◆ 식전행사 : 입장, 식전행사 · 길닦기 공연
◆ 1부(본행사) : 취임식 · 법요식
◆ 2부(축하공연) : 영상, opening show, 가요/국악, 폐회, 뒷풀이

※ 한불총 사회봉사단 출범선언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행사 알림

※ 출연자 - 송대관, 김성녀, 김흥국, 김하정, 김태곤, 보현스님, 머루와 다래
사회 - 김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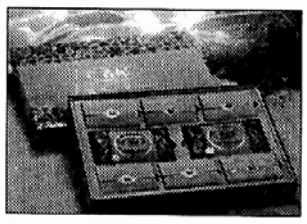
문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 홍익빌딩 502호
전화 02)734-5221~4 / FAX 02)734-5224

사단법인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